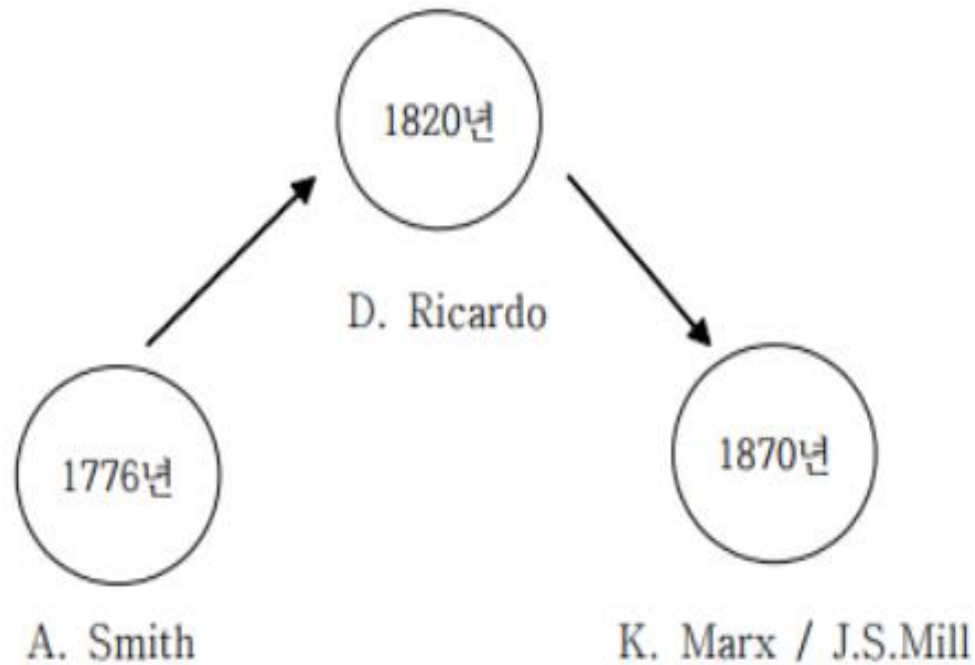


D. Ricardo



1.시대적 배경



2. 생애 (1772~1823년)

- 스페인계 암스테르담 거주 유태인 가계
- 런던의 The City의 5대 주식중개인 가문의 3남
- 11세부터 2년 간 암스테르담 Rabbi 학교에서 교육을 받음.
- 14세부터 부친아래에서 **주식중개인 수련**을 받음.



- 21세에 Quaker 교도와 결혼, 독자적으로 주식중개업 시작
- 1814년 은퇴
- 1819년~1823년 하원의원, 아일랜드 선거구 포르타링턴 대표
- 1823년 뇌질환으로 사망

- **경제학 연구경력 : 1809년~1823년**

- 신흠 초 휴양지에서 처음 국부론을 읽음. (1799년)
- James Mill의 독려, James Mill의 권유로 1810년, 1815년, 1817년 저술을 시작하고 또 의회에 진출
 - : James Mill은 Utilitarian/ J. S. Mill의 아버지
- 리카도는 공리주의자가 아님.
- 맬서스와는 correspondences

- **주요 저작**

- 1810년 지금의 고가격, 은행권 감가의 증거, *The high price of Bullion, a proof of the depreciation of bank-note*
- 나폴레옹 전쟁에 따른 물가상승문제를 영란은행 은행권의 통화남발 때문임을 지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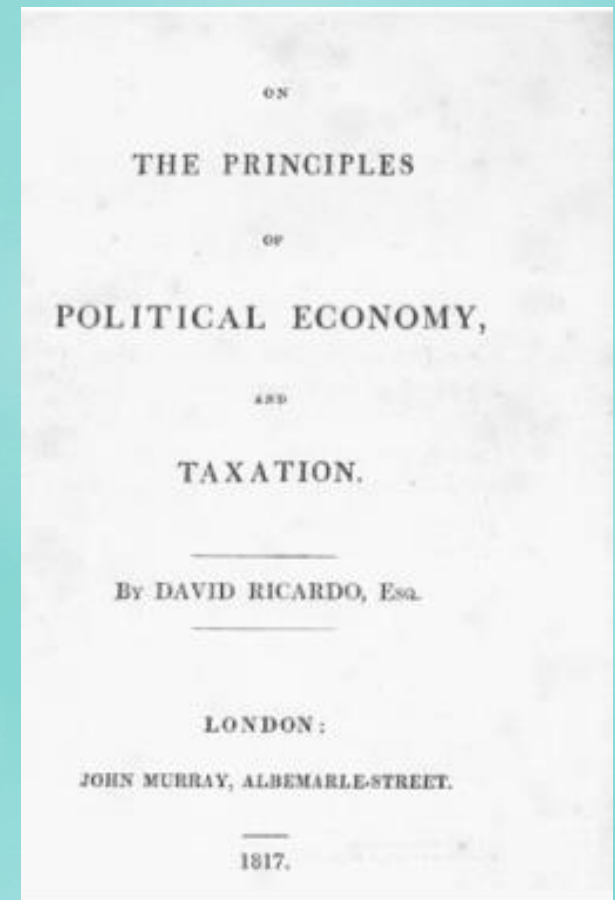
➤ 1815년 낮은 곡물가격이 자본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, *Essays on the influence of a low price of Corn on the Profits of Stock : showing the inexpediency of restrictions on importation*

◆ James Mill의 독려와 교정

◆ 소득분배이론의 핵심을 포함

➤ 1815년 "지대의 성격과 원인에 대한 탐구, *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Rent*"

➤ 1817년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, *On the Principle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*



3. 방법론

① 추상적 방법

- 편견이나 선입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인 system of thought 추구
- 추상적 연역, 강한 가정
- 장기 추세 설명에 적합
- Schumpeter의 Ricardian Vice
 - : large bundle of fact, frozen facts
 - : clear and simple relation

② 리카도의 방법론은 이후 모형, 수학 등의 방법으로 발전되면서 **지금까지 지배적인 경제학 방법**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.

cf. 스미스의 국부론 구조

4. Bullion Controversy (1809~1811)

① 지금 논쟁의 기원

- 문제의 발단 : 나폴레옹 전쟁비용 조달
- Bank of England

② Bank of England 설립 (1694년)

➤ 배경



③ Bank of England 금태환 중지 (1797년)

➤ 1817년 부분적 태환 재개

➤ 금본위제도 특징 : 은행으로 귀속되는 금의 가치만큼 통화량이 발행 은행으로 돌아오고, 금 보유량만큼 화폐가 발행된 것. 시중에 유출되는 통화량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에 따라 달라짐.

④ 상반된 주장

- Bullionist : 영란은행 비판 → Currency School
- Anti-Bullionist : 영란은행 옹호 → Banking School

➤ Bullionist : paper money가 과잉, 태환 재개 주장

: 온스당 3파운드 17실링 10 1/2 페니로 정해졌던 금괴가격
이 1804년 이후 액면가 이상으로 상승

➤ Anti-Bullionist

: 은행권의 양이 금괴 가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정

: 진성 어음주의 (real bill doctrine)

➤ 1844년 Peel's Act (은행조례)

- ◆ Currency School 의 주장을 받아들임.
- ◆ Ricardo 플랜에서의 핵심적 요소인 통화적 활동과 은행적 활동의 분리를 받아들임.
- ◆ Issue Dept & Banking Dept.
- ◆ 지급준비율 100%로 조정
- ◆ 1946년 국유화

5.이윤론 - 초기 Ricardo 경제학

①시대적 배경 : 산업혁명(1770년대~1820년대)

- cf. 리카도 경제학 정의 : 정치경제학의 주요문제는 지주, 자본가, 노동자 계층 간의 '생산물 분배를 규제하는 법칙' 탐구

➤ 리카도와 맬서스와의 편지 (1820)

"대지의 소출, 즉 노동, 기계류, 자본을 함께 사용한 결과 대지의 표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**3대 계급**, 즉 토지 소유자, 토지 경작에 필요한 자본 기금의 소유자, 땀흘려 토지를 경작하는 노동자사이에서 나누어진다. 이러한 **분배를 규제하는 법칙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경제학의 으뜸가는 문제**이다." (1817 中)

② 곡물법(Corn Law) 논쟁

➤ 나폴레옹 전쟁기간 중 대륙 봉쇄, 전후 1815년 곡물법 제정

➤ 결과 : 전시가격의 일정수준 이상으로 곡물가격이 등귀할 때에만 수입을 허용

→ 국내곡물가격의 높은 수준 유지, 농업(지주계층) 보호

→ 반곡물법 동맹

➤ Malthus와 Ricardo 간의 **논쟁**

→ **리카도는 곡물법 폐지를 주장**

: 곡물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이윤이 하락하고, 성장이 멈출 것

→ **맬서스는 곡물법 유지를 주장**

③ 리카도의 **Corn Model** (이윤론, *Corn Theory of Profit*)

- 리카도의 문제 : 곡물가격 상승과 이윤율 간의 관계
- 차액지대론 & 수확체감 법칙 이용
- 곡물은 농업 부문의 유일한 산출물 & 투입물이라 가정

- 차액지대론 (★★★)

- 가정 1 : two sector model
- 가정 2 : 상이한 구획의 땅은 비옥도가 다르므로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도 곡물의 산출량은 다르다.
- 가정 3 : 비옥도가 떨어지는 것은 연속적이다.
- 가정 4 : 농지는 대체 용도가 없다.
- 가정 5 : 지주, 자본가, 노동자로 구성된 오로지 곡물만 생산되는 단순한 경제
- 가정 6 : 농업의 이윤율이 제조업의 이윤율을 결정

- 리카도 **지대 정의**

"원초적이고 파괴할 수 없는 토양의 힘을 사용하도록
허락한 대가로 땅의 소출 중에서 지주에게 지불하는 부분"

- 리카도의 지대 결정 이론의 **두 가지 전제**

- ① 모든 토지는 비옥도가 차이가 나며 따라서 모든 토지를 가장 비옥한 것에서 가장 덜 비옥한 것까지 **한 줄로 정렬할 수 있다.**



- ② 지주에게서 땅을 세내어 경작하는 자본주의적 영리 농업가의 이윤율은 그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항상 균등화됨.

- 리카도의 순 생산물(net produce)이란?

- a. 순생산물 = 생산된 총량 - 생산에 필요한 모든 비용

“토지의 사용에 대해 지대가 지불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뿐이다. 토지의 질이 균일하지 않고 또 토지의 양이 무제한이 아니므로, 인구가 늘어나면 열등한 질의 토지까지 경작에 사용되기 때문이다. 사회가 진보하는 과정에서 비옥도가 2등급인 토지가 경작되면 1등급의 토지에서는 즉시 지대가 발생하며, 지대의 양은 두 토지의 질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에 달려 있다.” (1817)

➤ 1번 토지, 2번 토지, 3번 토지가 있으며, 각각에 노동과 자본을 똑같이 사용했을 경우, 순 산출이 각각 100, 90, 80쿼터의 곡물이라고 가정하자.

➤ 지대가 늘어나도록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 영리 농업가들 사이의 경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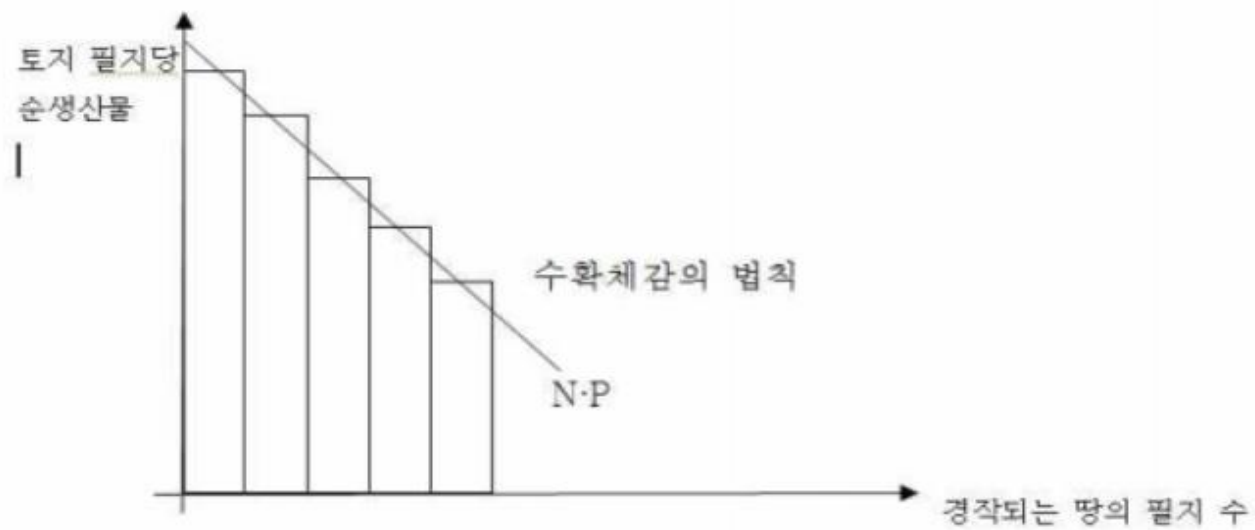
"자본 기금을 사용하는 모든 일들은 이윤이 덜한 사업에서 좀 더 이익이 남는 사업으로 이동하려는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모든 이들의 이윤율이 동일해지는 강력한 경향이 나타난다." (1817)

- 경쟁으로 인해 비옥도가 가장 떨어지는 구획의 경작지는 아무런 지대도 얻지 못할 것
- 지주는 잉여를 지대로 요구하고 그 결과 지대는 경작 중인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더 나은 땅에서 얻어지는 잉여로 나타남.

<그림 1> 세 필지 땅의 순 생산물과 지대

10			
10		10	
80		80	80
순생산물=100		순생산물=90	순생산물=80

<그림 2> 농업에서의 수확체감



<그림 3> 이윤 및 임금과 지대의 구별

- 리카도의 전체 이론에서 **이윤론은 결정적이고 중심적인 요소**
- **이윤을 잉여로 보았음.**
- **이윤은 지대가 없는 한계지를 경작하는 자본가의 이윤에 의해 결정**
- 리카도는 맬서스의 인구론을 받아들임. 인구증가는 **노동자의 임금을 생계수준으로 내리누르는 경향**이 있다.

- 단순상품모델에서 자본은 단순히 **곡물로만 이루어짐**.
- 자본가는 이를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함.
- **이윤율** : 지대를 발생시키는 않는 한계지에서의 순생산물과 임금을 모두 곡물의 양으로 표현했을 때, 그 둘의 비율
- 따라서 **이윤율은 감소**할 수 밖에 없음.

④ 자본축적과 경제성장

- 경제 번영이란 자본축적, 그리고 그 축적이 가져다주는 경제 성장과 번영이라 규정

➤ 지주와 자본가가 잉여 또는 순 생산물을 놓고 벌이는 투쟁
에서 농업부문의 생산성 체감으로 인하여 지대가 갈수록 높
아지고, 이로 인해 이윤은 꾸준히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
고 생각함.

"모든 경우에서 해당 토지에서 이미 획득된 이윤의 일부이다. 지
대는.....결코 새로운 수입을 창출한 것이 아니며 항상 이미 창출된
수입의 일부분일 뿐" (1815)

<그림 4> 경작지의 한계가 확장됨에 따라 소득분배에 나타나는 변화들

- 리카도의 모델에서 **이윤을 압박하는 직접적인 책임**은?
- **곡물과 노동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?**
- 경작 한계지가 확장되면서 노동생산성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곡물생산에 체현된 노동은 증가함. 이는 농업부문에서의 이윤율을 낮추게 됨.
- 하지만 제조업은?
- 따라서 경쟁을 통해 여러 부문의 이윤율이 동일해지려면?

➤ **축적이 멈추게 되면?**

➤ Stationary State

➤ 곡물법 반대

➤ 곡물수입의 금지의 결과?

➤ 농업기술의 개선?

이윤은 상품의 가격에 달려 있으며,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, 즉 수요에 대한 공급에 달려있다...(그런데 리카도의) 이윤론은 수많은 상품의 가격이 똑같이 유지되고 따라서 화폐의 가치 또한 변하지 않는 가운데 **노동의 가격만 변한다는 상황에 전적으로 의존한다**....하지만 만약 상품의 가격이 똑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**아주 다양한 크기로 영향을 받는다면**, 그래서 어떤 것은 오르고 다른 것은 떨어지며 똑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극소수의 상품에 불과하다면, 우리가 화폐임금의 상승으로부터 이윤율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. (*Dobb, M., 1973*)